

병자호란시 江都 참화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 <江都被禍記事>와 <閔龍巖埤傳>을 중심으로 -

김 현 주*

차 례

I. 서론	3. 인간에 강조
II. 강도 참화의 문학적 형상화와 작가의식	III.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의 거리
1. 전란의 참상 고발	IV. 결론
2. 윤리의식 고양	

국문초록

이 글은 정양의 <강도피화기사>와 송시열의 <민용암성전>을 중심으로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 모습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작가의식과 관련지어 살피고, 나아가 이 두 작품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작가의 전란 체험 유무와 창작동기, 그리고 갈래적인 측면에서 밝힌 것이다.

정양의 <강도피화기사>와 송시열의 <민용암성전>은 ‘병자호란 당시

* 동국대 강사

강도의 참화’를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작품인데, <강도피화기사>는 전란의 참상을 고발하고 윤리의식을 고양하며 인간애를 강조하기 위해 강도 참화의 다양한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한 반면에 <민용암성전>은 전란의 참상 고발과 윤리의식의 고양을 위해 강도의 참화를 절의와 관련지어 이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로 인해 등장인물 역시 <강도피화기사>에서는 ‘현실적 인간형’으로 그려진 반면에 <민용암성전>에서는 ‘이념적 인간형’으로 형상화되었다.

이 두 작품이 강도 참화의 서로 다른 모습에 주목하고 그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이유는 작가의 전란 체험 정도와 창작동기,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갈래가 달랐기 때문이다. <강도피화기사>의 작가인 정양은 강도 함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란의 현장을 자세히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사라는 장르를 선택하였다. 때문에 정양은 전란의 참상과 윤리의식과 함께 전란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간애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반면에 <민용암성전>의 작가인 송시열은 강도 함락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민성과 그 일가가 자결하였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듣고 제 3자로서 민씨 일가의 절의를 칭송하여 후대에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이라는 장르를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송시열은 전란의 참상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절의라는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민성과 그 일가의 자결’이라는 사건만을 취사선택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렇게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은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가 우리의 문학사에서 작가나 갈래가 다를 경우,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가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주제어 : 병자호란, 강화도, <강도피화기사>, <민용암성전>, 정양, 송시열, 문학적 형상화

I. 서론

우리문학에서 병자호란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남한산성과 관련된 이야기와 江都와 관련된 이야기로 양분할 수 있다. 남한산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임금을 남한산성으로 호종하면서 겪은 일과 남한산성 내에서 주화파와 척화파 간의 대립을 그려내고 있으며, 강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대부분 강도 함락 사건과 함께 백성들의 피란·참화의 모습을 작품의 제재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병자호란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도 강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병자호란의 참상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며 당시 조선 사회가 겪었던 병자호란의 충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므로 나름의 가치가 있다.

강도는 병자호란 당시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 지금까지는 그 피해의 참상을 주로 각종 실기류와 <江都夢遊錄>을 통해 들여다보았는데,¹⁾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장르 및 작품에서도 강도의 참상이 종종 목도되곤 한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 모습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鄭養(1600~1668)의 <江都被禍記事>와 宋時烈(1607~1689)의 <閔龍巖坪傳>을 선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²⁾

<강도피화기사>는 정양의 문집인 『抱翁集』 권5에 수록되어 있는 작

1) 정한국, 「병자호란시 江華관련 실기류 및 몽유록에 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23, 한국한문학회, 1999; 신선희, 「17세기 필기류와 몽유록의 대비연구」,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조혜란, 「<江都夢遊錄> 연구」, 『古小說研究』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장경남, 「丙子胡亂 實記와 著作者 意識 研究」, 『승실어문』 17, 승실어문학회, 2001; 정충권, 「<江都夢遊錄>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와 형상화 방식」, 『韓國文學論叢』 45, 한국문학회, 2007.

2) 이 두 작품을 공동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첫째, 이 두 작품이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작품 속 주인공인 정양과 민성은 병자호란 당시 관료가 아닌 일반 士類로서 피란 체험의 정도가 서로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셋째, 작품의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이 강화도의 마니산 주변과 인근 해변가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품으로, 병자호란 당시 강도에서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바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따라서 정양과 그 일가의 피란 상황뿐만 아니라 避亂民과 江都民의 참상까지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창록³⁾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소개한 이래로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전란의 참상을 보여주는 대목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작품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소개⁴⁾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용암성전>은 송시열의 문집인 『宋子大全』 권214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으로, 병자호란 당시 강도가 함락되자 가족들과 함께 마니산 天登寺에 들어가 순절한 閔垕(1586~1637)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송철호⁵⁾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소개한 뒤, 17세기의 정표정책과 임병양란 인물전의 상관성을 밝히는 연구⁶⁾와 박사학위 논문⁷⁾에서 여성의 절의와 관련지어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 관련 연구의 전부이다.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은 모두 전란의 참상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⁸⁾ 전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식의 다양한 모습들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두 작품은 작가의 전란 체험 유무, 창작동기의 차이에 따른 실기와 전이라는 장르의 다름에 따라 작품의 실상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을 통해 동일한 배경을 대상으로 한, 갈래가 다른 두

3) 조창록, 「朝鮮後期『記事』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3.

4) 조창록, 같은 논문; 정환국, 앞의 논문; 장경남, 앞의 논문.

5) 송철호, 「임병양란 인물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송철호가 소개한 『笥泉集』 소재 <龍巖傳>과 본고에서 다룬 『송자대전』 소재 <민용암성전>은 내용상 동일한 작품이다.

6) 송철호, 「17세기의 정표정책과 임병양란 인물전」, 『동양한문학연구』 11, 동양한문학회, 1997.

7) 송철호, 「戰亂傳의 인물형상과 서술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 <민용암성전>은 전이라는 장르에도 불구하고 민성 일가가 자결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사실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주목되는 작품이다. (송철호, 위의 논문, pp.50~51 참조.)

작품의 문학적 형상화가 각각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밝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두 작품이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를 각각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작가의식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두 작품이 강도의 참화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강도 참화의 문학적 형상화와 작가의식

1. 전란의 참상 고발

전란 중 일반 백성들이 겪은 고초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강도피화기사>의 작가이자 주인공인 정양은 병자호란 당시 강도에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전란을 체험하였으며 그들의 참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따라서 <강도피화기사>에는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참상이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참담한 심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한 예로, 정양이 인가의 처마 밑에 숨어서 적을 피하다가 백성들의 참상을 보게 되는 장면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4일 아침, 앞으로 달아나 길가에 숨으며 처마 밑에 엎드려 있었다. 한낮에 家卑 春時가 내가 굶은지 이틀이 된 것을 염려하여 죽을 끓여와서 먹게 했으나, 미처 다 먹기도 전에 이미 산 위에서 적들이 왔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마침내 머리를 숙이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는데, 春時도 급히 달아나 다른 곳으로 갔다. 곧이어 적의 기병이 돌진해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 앞에도 집 뒤에도 적들이 그득하며 다투어 해괴한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높아졌다가 낮아져서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하고 의아하게 한 것은 이른바 적들이 돌진할 때 일제히 지르는 함성이라는

것이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간담이 다 떨어진다.

간혹 그 소리를 그치고 몰래 나아가서 살피다가 오랜 후에야 또 그 소리를 지른 것은 사람을 찾아 노략질하는 적들의 미친 것이였다. 적들은 마침내 울타리를 사이에 둔 집에 들어가 한 노파를 찾아내고 마구 때렸는데, 비명을 지르며 죽는 소리가 나의 기운을 이미 다 빠지게 하였다.

마침내 내가 숨어 엎드려 있는 처마 밖에도 적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적 하나가 문에 이르러 머뭇거리며 또 장차 들어오려는 형상이 있었으나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방에 가득 찬 어미를 부르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때 노략질 당한 소와 말이 이리저리 돌아 다녔는데, 우리가 엎드려 있는 처마 밖에 있는 점초를 먹으러 온 소 한 마리가 있었다. 처음엔 적이 이미 알고 처마를 혈어 우리를 나오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내가 감히 엿보다가 그것이 소인 것을 알고서는 안에서 소를 쫓아버렸다.⁹⁾

이 장면에서 작가 정양은 처마 밑에 숨어 있어서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리를 중심으로 당시의 참화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이 오히려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작가는 고향소리, 말발굽 소리, 징소리, 노파를 때려죽이는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등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이를 통해 매우 긴박하였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소리로 체험을 형상화한 이 부분은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 전란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작가는 이처럼 전란 중에 자신이 목도한

9)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二十四日朝 前走匿於路邊伏簷下 其午時 家婢春時念我飢已二日也 炊粥來食 而未及食 已有山上之呼賊來矣 遂囚首潛息以待 則婢亦急走而他之矣 卽聞賊騎突至 充斥於家前家後 而爭爲駭怪之聲 斗高而低 驚惑人聽者 其所謂吶喊者歟 到今思之 心膽俱落 時或止其聲而潛向以察 久而後 又作其聲者 搜掠人之賊獍者歟 賊遂入於隔離家 搜得一老嫗而亂撲之 呼死之聲 令我氣已盡矣 遂絡繹於所匿伏簷之外 而一賊至門趑趄 且有將入之狀而竟不入者 其以滿房呼母之兒啼聲徹於外 而謂其無人故歟 時被掠牛馬縱橫 有一牛來食伏簷之外所苫草也 初謂賊已覺而毀簷出我等也 妻敢窺察其爲牛也 自內刺牛而逐之.”

백성들의 참상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는 자신과 가족들의 피화 사실도 빠뜨리지 않고 세세히 기록하였다. 다음은 정양 일가가 배를 타고 外島로 피란하려고 하는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게 되는 장면이다.

아침 해가 이미 높이 뜨고, 조수가 바다 입구에 들어왔다. 곧 밥 먹을 때에 마땅히 배를 띄워 건널 계획이었다. 갑자기 목장마 십여 마리가 치달려오니, 아내가 말하기를 “이 말들이 쫓김을 당하는 모습이 이와 같으니 필시 적이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연 적의 수십 명의 기마병들이 저 멀리서 배를 향해 왔다. 배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분주히 뛰어 달아나서 바다 속에 빠질 계획이었으나, 바다는 아직 수백 보나 멀리 있었다. 때문에 적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이르러 협박하여 재물을 뺏으니, 마치 날아온 것 같았다. 어제는 진흙이 정강이까지 빠지던 땅이 지금은 아침 추위 때문에 굳게 얼어 있으니, 마치 적에게 하늘의 도움이 있는 것 같았다. 적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생각건대 달아나서 바다에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여기고, 제수와 아내와 함께 모두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려 하니, 곧 흐르는 피가 몸을 덮고 얼굴에 가득하여 그 자리가 마치 소를 잡는 곳 같았다. 나도 무릇 세 번 목을 베었으나 죽을 수 없었다.

적이 배에 오르고 죽지 않은 것을 보자 연이어 다섯 발의 화살을 쏘아 해치려 하였다. 그 첫 화살은 왼쪽 옆구리 아래에 명중하였고, 두 번째 화살이 왼쪽 귀 위 두뇌에 명중할 때는 대략 그 아픔을 기억할 수 있었으나 왼쪽 눈에 맞았을 때와 왼쪽 손가락에 맞아 부러졌을 때는 모두 기억할 수가 없다. …중략… 화살에 맞아 눈을 감고 죽게 되어서 보니, 아내는 옆으로 놓인 창 아래에서 거의 죽어가고 萬石 아기는 뱃속에서 뛰며 움직이고 있었다. 또 나를 향하니, 나는 마음속으로 ‘정씨의 핏줄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애석하구나.’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숨이 곧 끊어질 듯 끝을 향하였으나 정신은 오히려 죽지 않았다. 때문에 적이 마침내 머리를 뿔까 염려하였으니, 어찌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더욱 빠르게 죽고자 하였으나 그럴 수 없었다.¹⁰⁾

이 부분은 <강도피화기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배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적들이 돌진해 오자, 배 위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양은 함께 있던 아내, 제수와 함께 자결을 택했으나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결국에는 적들에게 다섯 발의 화살을 맞게 된다.

작가는 대화와 묘사의 구체적인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고조하면서, 사건의 빠른 전개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제수, 아내와 함께 자결하는 장면을 ‘흐르는 피가 몸을 덮고 얼굴에 가득하여 그 자리가 마치 소를 잡는 곳 같았다’고 비유적으로 쓰거나 죽어가는 아내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며 움직이고 있었다는 표현을 통해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부각시켰다. 작가는 이처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자신과 가족들의 참상을 더욱 절실하게 묘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란의 참상은 적들이 노략질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날이 이미 저녁이 되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적들이 협박해서 뺏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줄지어 길을 가득 메우며 가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¹¹⁾

여중 八生은 적이 처녀로 여겨 불렀다. 그리고 재삼 꺾어 데려가려

10)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初日已高 潮入於海口 則計於食時當泛舟而濟矣 忽見牧場馬十餘馳逐而來 妻曰 此馬若被逐之狀 必是賊來也 言未久 果有賊數十騎 超忽而來向於舟 滿舟之人 奔波爲走 溺於海中之計 而海尙有數十百步之遠 故賊已突至而驅掠 如飛來然者 昨之泥淖沒脛之地 今以朝寒而冰堅 若有天助於賊也 賊來之初 自度不及走溺於海 而與嫂妻皆自刎以絕 則流血被體滿面 其坐若宰牛之地也 濫則凡三刎而不能死也 賊登舟而見不死 連發五矢而害之也 其初中於左脅下 再中於左耳上頭腦之時 則粗可記其爲痛 而其爲中左眼中左指而折之 皆不可記也 …중략… 其被箭闔眼而死也 見妻倚死於橫槩之下 而萬石兒跳動於腹中 又向我也 我心以爲可惜鄭種盡於斯矣 遂奄奄向盡 而精神猶不死 故慮賊終斷頭 則何可忍其痛乎 而尤欲速盡不可得也.”

11)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日已夕矣 山上山下之賊 驅掠人畜駢填而去 遠近哭聲 胡可忍也.”

하였으나 즉시 듣고 따르지 않으니 칼로써 협박한 후에야 몰아갈 수 있었다. 적은 배 안에 버리지 않은 의복들을 거두어 모아 크게 묶어 어깨에 메고서도, 쉽게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 때문에 적들이 돌아가지 않음을 더욱 번민했다. 적은 맞추었던 화살을 손수 뽑아서 거두어 갔고, 또 어깨에 메고 있던 외조부모의 신주 및 家籍을 풀게 해서 먼지를 털고 가지고 갔다.¹²⁾

첫 번째 인용문을 통해 적들이 산 위와 산 아래를 휘젓고 다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적의 노략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줄지어 길을 가득 메우며 가니’라는 표현을 통해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비통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 적들이 처녀들을 끌고 갔으며 닥치는 대로 재물을 약탈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적들은 옷과 장신구를 비롯하여 자신들이 쓴 화살까지도 거두어 갔으며, 심지어 조상의 신주와 家籍까지도 재물로 여겨 가져갔다. 작가는 이처럼 적들이 노략질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낱말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전란의 참상과 적들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란의 참상을 꼭 적에게 화를 입는 장면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도가 함락되고 적군이 몰려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죽음을 택한 민성 일가의 이야기는 <강도피화기사>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전란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민용암성전>에서 민성 일가가 자결하는 장면이다.

12)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八生婢 則賊呼以爲處女 而再三誘之使去而不卽聽從 則以劍向脅之後 得驅去也 賊收合舟中不棄衣裝 圍結作擔 未易撤還 故尤悶其賊之不去也 賊手拔其所中箭而斂之 又解所肩帶 外祖考妣神主若所實家籍 而拂而去之.”

재만은 자결에 임하여 종에게 말하기를 “어찌 우리를 先塋에 收葬하기를 바라겠느냐. 한집안 식구 10여 명이 이 한곳에 함께 있어야 거의 지하에서라도 서로 의지할 수 있으리니, 우리들이 죽은 뒤에는 즉시 이 土宇를 헐어서 덮어 버리고 너희들은 각기 나가서 살기를 도모해야 한다.” …중략… 맨 처음에 婢 代香이 지박에게 달려와서 말하기를 “한때에 모두 돌아가시면 그 누가 시신을 가려드리겠습니까. 시신을 가린 다음에 돌아가셔도 늦지 않겠습니까.” 하자, 지박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차마 부친이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드디어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목을 매어 죽었다. 아이들을 등에 업고 나간 비복들이 모두 약탈당하여 최씨의 딸아이도 죽었다. 다만 재만의 姊氏와 늙은 여종만이 죽음을 면하여 仙源里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씨는 한집안이 과연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어찌 차마 혼자만 살겠느냐.” 하고는, 드디어 등에 업힌 아이를 늙은 여종에게 주면서 “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一家의 살아남은 자를 찾아서 붙여주어라.” 하고는, 또한 마침내 자결하였다.¹³⁾

강도가 함락되자 민성은 피란 대신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자결하는 방도를 택했다. 인용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성은 피란길에서 화를 당하는 것보다 자결하여 가족과 한 곳에 묻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인물이다. 민성은 죽기 전 늙은 庶姊에게 부탁하여 집안의 아이들만은 피란하여 무사히 살아남기를 빈다. 그런데 아이들을 등에 업고 나간 비복들이 모두 약탈당하여 최씨의 딸아이마저도 죽게 된다. 다만 재만의 姊氏와 늙은 여종만이 죽음을 면하게 되나 자씨마저도 아이를 늙은 여종에게 부탁하고는 자결한다. 이 부분은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무자비

13) <閔龍巖坪傳>, 『宋子大全』 卷214. “載萬臨決 謂奴曰 豈望收葬先塋乎 一家十餘人同此一處 庶得相依於地下 我輩死後 卽毀此宇以掩之 汝輩各出圖生可也 …중략… 始 婢代香趨謂之針曰 一時皆死則誰將掩尸 掩尸之後死未晚也 答曰 吾豈忍目見父親之亡乎 遂先其父而經焉 婢僕之負兒輩出者 皆見掠 而崔女死焉 獨姊與老婢得免 獲至仙源里 姊聞一家果皆死之 痛哭曰 何忍獨生 遂以所負兒授老婢曰 汝以此尋一家之餘存者而付之 亦遂自決.” (<민용암성전>의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의 번역문을 참고하였다.)

하게 죽이는 적의 잔악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여기서 작가는 민성 일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대화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제법 길게 서술함으로써 전란의 비극성을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작가는 이 외에도 피란 온 사대부와 서인들이 절 안에 가득한 모습,¹⁴⁾ 庶姊와 비복이 아이들만 데리고 피란 가게 되자 아이들의 부모를 시켜 각자 四祖와 생년월일시 및 그들의 이름을 적어 의대에 차고 옷 속과 피부에 기록하게 하는 모습,¹⁵⁾ 민성의 큰딸이 딸아이를 婢僕에게 맡기며 우는 모습¹⁶⁾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병자호란 당시 피란민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사실감 있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용암성전>에서 이러한 장면들은 작품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장면들은 ‘민성과 그 일가의 자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¹⁷⁾

이와 같이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은 강도 함락에 따른 전란의 참상을 비유·묘사·대화 등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강도피화기사>의 작가는 병자호란 당시 백성들이 참화를 당하는 모습, 정양 일가가 적들에게 공격을 받는 모습, 적들이 노략질하는 모습 등을 통해 전란의 참상을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민용암성전>의 작가는 민성과 그 일가의 죽음과 관련된 전란의 참상만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전란의 참상을 보여주는 대상이 무엇이든지간에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의 작가가 이러한 사건들을 충실히 적어 남긴 의도는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상을 고

14) <閔龍巖坪傳>, 『宋子大全』 卷214. “時避亂土庶彌滿寺中.”

15) <閔龍巖坪傳>, 『宋子大全』 卷214. “卽令兒輩父母 各書四祖及生年月日時及其名 佩其衣帶 且書于衣裏及其肌膚以識之以授姊.”

16) <閔龍巖坪傳>, 『宋子大全』 卷214. “崔婦出付其女之際 潸然出涕 之針曰 姊何泣也 無乃感死乎 崔婦拭淚而答曰 非死之感也 子母至情 自不能不爾也.”

17) 이에 대해서는 ‘2. 윤리의식 고양’ 부분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발함으로써 그 아픔을 되새기고 한편으로는 후대를 경계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2. 윤리의식 고양

<강도피화기사>에서 정양은 피란 체험을 기록하면서 전란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윤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 사회에서 중요시한 윤리 규범으로는 충·孝·烈이 있는데, <강도피화기사>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전란 속에서도 충을 드러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자년 겨울 12월, 만주의 오랑캐가 갑자기 들이닥치니 임금은 남한 산성으로 거둥하시고, 종묘사직 및 세자빈과 원손은 모두 강도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通津의 寓舍에 있었는데, 둘째 형 및 가족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대대로 녹을 받는 신하이니, 죽음을 피해 살길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마침내 서로 더불어 강도로 들어갔고, 둘째 형은 그날로 分司에 자원하여 나아갔다.¹⁸⁾

이 장면에서 작가 정양은 전란이 일어나자 나라의 녹을 먹은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충성심을 보인다. 그리하여 정양은 가족들과 함께 강도로 들어갔다.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적이 도성을 급습해오자, 세자빈과 원손들은 임금의 명을 따라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강도로 피란하였다. 당시 강도는 국가가 내세운 마지막 보루였으므로 정양은 강도로 들어가서 국가와 존망을 함께하고자 한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체험을 기록함에 있어 나라와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丙子冬十二月 建虜猝至 上幸南漢山城 廟社及世子嬪元孫 皆入江都 時濬在通津寓舍 與仲氏及諸家屬謀曰 吾儕是世祿之臣 不可逃死求生 遂相與入江都仲氏日詣分司呈身.”

다음으로, 전란 속에서도 孝의식이 드러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마침내 적이 간 것을 알고서 눈을 뜨고 보았다. 곧 아내가 비로소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켜 움직여서 나를 부축하고 마른 곳애다 옮겨 누었다. 아내는 이어서 배 안에서 급히 찾아보았지만, 단지 외조모의 신주만 찾을 수 있었을 뿐, 외조부의 신주는 찾을 수 없었다. 그 후 매형 崔氏가 외조부의 신주를 받들어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절때 바다 가운데에서 우연히 木主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건져서 그것을 보았는데, 粉面이 모두 씻겨나가 볼 수 없었으나 陷中을 보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이는 필시 선조의 영혼이 어둡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¹⁹⁾

이 부분은 정양의 아내가 피란 도중 적들의 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정신을 차리자마자 조상의 신주를 찾는 장면이다. 작가 정양은 곧이어 잃어버린 외조부의 신주를 찾게 된 이야기를 덧붙이고, 바다 가운데에서 신주를 찾은 것은 필시 선조의 영혼이 어둡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신주를 먼저 찾아 챙기는 아내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전란 속에서도 자신들이 조상의 신주를 지켜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상의 신주를 소중히 하는 행위는 부모와 조상을 정성껏 모시는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작가는 이 부분을 통해 자기 가문의 효의식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전란 속에서도 烈이 드러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적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생각건대 달아나서 바다에 빠질 수 없을 것으로 여기고, 제수와 아내와 함께 모두 스스로 목을 베어

19)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遂知其賊去 開眼而視之 則妻始作勢起動 扶滾而移臥乾處也 妻仍急索於舟中 只得外祖妣神主 而外祖考神主則無得焉 其後崔兄以外祖考神主奉還曰 曩於海中 偶見木主之漂流 拯而見之 則粉面皆陶洗不可見 見於陷中而知之云 此必先靈之不昧者乎.”

죽으려 하니, 곧 흐르는 피가 몸을 덮고 얼굴에 가득하여 그 자리가 마치 소를 잡는 곳 같았다. 나도 무릇 세 번 목을 베었으나 죽을 수 없었다.²⁰⁾

제수와 아내가 입고 있던 옷을 끝내 빼앗기지 않은 것은 당초에 분주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남루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목을 찌르는데 이르러 또한 그 피를 급히 취하여 먼저 얼굴부터 더럽혔기 때문에 옷 또한 모두 핏빛이었으므로, 옷을 취할 수가 없어서 빼앗기는 것을 면한 것이었다.²¹⁾

작가가 이 부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제수와 아내의 절개이다. 전란을 겪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류는 여성들이었다. 병자호란 때에도 많은 여성들이 오랑캐에게 끌려가 욕을 당하였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킨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작가 정양도 당대 사람으로서 이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수와 아내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비록 살아있지만, 피란 중에 절개를 지키고자 자결을 시도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적들이 노략질해 가면서도 제수와 아내의 옷은 벗겨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이유를 면면이 따져 보임으로써 제수와 아내가 욕을 보이지 않고 정절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절을 중요시하였던 사회적 분위기와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민옹암성전>에서 송시열은 민성과 그 일가의 節義에 주목하고, 일가족 전체가 자결하는 모습을 무게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20)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賊來之初 自度不及走溺於海 而與嫂妻皆自刎以絕 則流血被體滿面 其坐若宰牛之地也 瀋則凡三刎而不能死也.”

21)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嫂妻所着衣之竟不被奪者 當初奔波也 故着藍縷衣裳 而至刎也 亦急取其血 先汚於面 故衣亦皆血色矣 以其無可取而獲免者歟”

드디어 절에 당도하여 법당에 올라 죽 늘어앉은 다음, 처녀 세 사람에게 각기 비녀를 꽂고 시집간 부인의 의복을 입도록 하였다. 이때에 피난 온 사대부와 서인들이 절 안에 가득 찼으므로, 재만이 그 시끄러움을 싫어하여 종에게 “조용한 곳을 찾아보아라.” 하자, 종이 “절 뒤에 서너 칸 되는 土宇가 있습니다.” 하므로, 즉시 그곳으로 옮겨 가 모두 앉아 있었다.

여러 아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자, 재만이 “모두 庶姊에게 붙여서 내보내는 것이 옳다.” 하고, 즉시 庶姊에게 “우리들은 곧 죽을 겁니다. 姊氏는 연로하여 반드시 辱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죽음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여러 婢僕들과 함께 이 어린아이들을 업고 나가십시오. 다행히 모두 살아남는다면 자씨의 功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자씨는 꼭 그대로 잘하십시오.” 하니, 자씨가 “의리상 함께 죽어야 마땅한데 어찌 차마 혼자만 살아남겠느냐.” 하고, 굳이 거절하여 듣지 않다가 강력히 권한 다음에야 승낙하므로, 즉시 그 아이들의 부모를 시켜 각기 四祖와 아이들의 生年月日時 및 그들의 이름을 적어 달라 하여 衣帶에 차게 하였다. 또 옷 속과 그들의 피부에 기록하여 표식으로 삼아 자씨에게 주었다.

이윽고 또 그의 첩인 禹氏에게 “너는 士族이 아니므로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니, 이 자씨를 따라 갈 수 있겠다.” 하자, 그 첩이 “제가 어찌 차마 主君을 버리고 살아남기를 탐내겠습니까. 설사 살아남기를 탐내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 젊은 여인이 혼자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므로, 재만이 “나는 네가 죽기를 아깝게 여길 줄 알았는데 너의 뜻이 이와 같으니 어찌 너의 뜻을 억지로 빼앗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崔氏의 아내가 된 큰딸이 나가서 그의 딸아이를 婢僕에게 부탁하는 즈음에 눈물을 줄줄 흘리므로 之鈞이 “姊氏는 왜 우십니까? 혹 죽기를 슬퍼한 것이 아닙니까?” 하자, 최씨의 아내가 눈물을 닦고 대답하기를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子母 사이의 지극한 情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각기 띠고 있던 흰 綿巾을 풀어 모두 스스로 宇內에서 목을 매었다.²²⁾

22) <閔龍巖坪傳>, 『宋子大全』 卷214. “遂至寺 升法堂列坐 使處子三人并笄 各服其衣服 時避亂士庶彌滿寺中 載萬厭其紛擾 謂奴曰 討一靜處 奴曰 寺後有三四間土宇矣 卽移就皆坐 諸子曰 此稚兒輩 何以處之 載萬曰 皆付庶姊出送可也 卽謂其庶姊曰 吾等卽將死矣 姊年老 必不見汚 且不見殺 須與諸婢僕 負此幼稚而出 幸而得

이 부분에서는 민성 일가가 천등사에 도착하여 자결에 이르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민성이 庶姊를 설득하여 어린아이들을 맡기는 대목과 민성의 첩 우씨가 자결을 택하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딸을 떼어 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으며, 비극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죽음을 앞두고 민성 일가의 처녀 세 사람이 비녀를 꽂고 시집간 부인의 의복으로 갈아입은 일과 민성의 첩 우씨가 士族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아비를 좇아 스스로 자결을 택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형상화하여 그들의 행위를 미화하고 있다.

작가는 <민옹암성전>의 논찬부에서 이러한 행적들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의 첩 禹氏는 천한 사람이었으나, 남편의 말 한마디에 격동되어 맨 먼저 죽어서 그의 뜻을 밝혔으니 더욱 사람들의 미칠 바가 아니다. 당시 사대부의 부녀들은 汚辱을 달게 받았고, 심지어 貴家·大族들의 경우도 추한 소문이 전파되어 심지어는 사람의 입에 담지 못할 일이 있었다. 그들의 평소에는 禹氏를 하찮은 벌레보다 천하게 여겼겠지만, 이제 성취한 절개로 본다면 도리어 사람과 짐승의 차이보다 더 현격하게 되었다. 秉彝의 마음이야 어찌 貴賤을 가지고 논하겠는가.

그리고 재만은 자기의 딸인 처녀 셋을 모두 비녀를 꽂고 죽게 하였으니, 옛날 송나라의 衡州 尹穀은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에게 冠을 씌워 주면서, “너로 하여금 관대를 하고 지하에 가서 先人을 뵈도록 하려 한다.” 하였으니, 죽음에 임해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허둥지둥함이 없이 일거일동을 예법대로 한 것은 예와 지금이 똑같은 것이다.²³⁾

全 姊之功豈不大哉 姊其勉之 姊曰 義當同死 豈忍獨生 堅拒不聽 強而後可 卽令兒輩父母 各書四祖及生年月日時及其名 佩其衣帶 且書于衣裏及其肌膚以識之以授姊 旣又顧謂其妾禹姓曰 汝非士族 不必死也 可以隨姊去矣 妾曰 吾豈忍舍主君而偷生乎 設有偷生之意 年少女人 獨將安之 曰我以汝爲愛死耳 汝志如此則何可奪也 崔婦出付其女之際 潸然出涕 之針曰 姊何泣也 無乃憾死乎 崔婦拭淚而答曰 非死之感也 子母至情 自不能不爾也 遂各解所帶白綿巾 皆自經於宇內.”

23) <閔龍巖坪傳>, 『宋子大全』 卷214. “其妾禹姓 賤者也 激於主君之一言 首先取死

위에 인용한 부분을 보면, 전란의 상황 속에서 사대부의 부녀들이 욕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였으며, 그러한 추한 소문들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송시열은 士族이 아닌 우씨의 행적을 드러내어 높이고 있다. 이 점은 사족들도 지키기 힘든 정절을 우씨가 지켰다는 사실을 통해, 사족들을 경계하고 한편으로는烈的식이 하층민에게도 퍼져 있음을 그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가는 송나라 尹穀의 고사를 들어 민성이 죽음에 임해서도 예법을 따른 일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민성과 그 일가의 죽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절의를 강조하고 윤리의식을 고양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에는 당시의 윤리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강도피화기사>의 작가는 당시 사대부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윤리의식이 전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모습을 잘 포착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남긴 것 같은 반면에 <민용암성전>의 작가는 절의가 드러나는 행적을 의도적으로 골라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강조하여 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忠·孝·烈·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3. 인간에 강조

<강도피화기사>의 작가는 고난한 피란 생활 속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정양이 피란 중 江都民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以明其志 尤非人之所能及也 當時士夫婦女 甘受污辱 至有貴家大族醜說流播 至使人不欲言者 其平日視禹 不翅壤蟲 而顧今所就 反不翅人獸之懸 秉彝之天 其可以貴賤論哉 載萬使其處女三人 皆笄而死 昔宋之尹衡州穀城陷 冠其子曰 欲令冠帶而見先人於地下 臨死而無慚怯錯亂 從容於禮法者 其事古今一轍也。”

마침내 庶母 등과 함께 불빛을 찾아서 내려오니 곧 처마 밑에 엎드려 숨었던 집이었다. 주인은 밥을 지어 와서 아이를 먹였고, 내가 굶주린 것을 보고는 마침내 적은 양의 밥을 나누어 권했다.²⁴⁾

정양과 가족들이 불빛을 보고 인가를 찾아 내려오니, 그곳은 정양이 낮에 처마 밑에 엎드려 숨어 있던 바로 그 집이었다. 집주인은 밥을 지어 와서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는 굶주린 정양에게도 비록 적은 양의 밥이었지만 나누어 주었다. 이 부분에서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베푸는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전란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정양을 따르던 하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산모가 급할 때는 뜨거운 국과 밥을 보내는 것이 관례이나 얻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婢僕들에게 물으니, 곧 末男이 먹다 조금 남긴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단물이 없어서 천천히 배 안을 살피니, 곧 또 파는 단물이 항아리에 가득 차 있었다. 愛丹이 무명 두 자가량을 잘라 한 바리의 물을 얻어서 살린 뒤, 내가 차고 있던 것과 試奴가 산위에서 얻은 것인 미역과 단간장 두 가지를 보내어 국과 밥을 만들어서 그 산모에게 보냈는데, 그 양이 지극히 적어 배불리 먹일 수 없었다.²⁵⁾

피란 당시 만삭이었던 정양의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느끼자 정양은 배위에서 해산하는 것이 곧 적의 공격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아내를 데리고 배에 올랐다. 정양의 아내는 배에 오르자마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산모에게 먹일 따뜻한 국과 밥은 물론 마실 물조차

24)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遂與庶母等 尋火光而來 則乃所匿伏簷之家 而其主人來炊 喂其兒矣 見我之飢 遂分饋少飯也.”

25)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兒母急時饋熱湯飯 例也而不能得 潛問於婢僕間 則有末男所食餘少許也 而又無甘水 徐察於舟中 則又有所售之甘水滿瓮矣 愛丹折其木綿二尺許 而活得一鉢水而後 以瀝之所帶試奴之得於山上而餉以甘藿甘醬二者 作湯飯而饋其母 其數至少 不得飽也.”

없었다. 그러나 하인들이 자신의 밥과 무명, 미역과 단간장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적은 양이었지만 산모에게 국과 밥을 지어 먹일 수 있었다. 이처럼 전란의 상황 속에서 어렵게 아이를 낳은 정양의 아내는 하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이 장면은 전란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음을 서술한 것으로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정양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 준 일도 기록해 두었다.

27일 저녁 때, 두 명의 적이 한 소녀를 보고 쫓아 이르니, 곧 소녀가 달려와 내가 누워 있는 아래 짚 속으로 숨기에 숨겨주었다. 한 적이 갑자기 문으로 들어와서 누워 있는 아래에서 그 소녀를 잡아 끌어내었다. 인하여 고들개철편으로써 나의 얼굴을 두서너 번 어지러이 치고 갔다.²⁶⁾

인용한 부분은 정양이 적에게 쫓기는 한 소녀를 자신이 누워 있던 짚 아래에 숨겨주다가 적에게 발각되어 고들개철편을 맞는 장면이다. 정양은 그 소녀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적인 인간애를 발현하여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피란민을 도와준 일화를 서술함으로써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미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강도피화기사>의 작가는 피란 중에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남김으로써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인간성의 존귀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품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인간애를 발현하도록 하였다. 이는 작가의 애민 의식과도 관련

26)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其二十七日夕時 二賊見一女逐至 則女走竄於我之臥下稿中而藏之 一賊突入於門而摔出其女於臥下也 仍以鐵鞭亂撲襪之面上數三而去.”

되어 있을 것이다.²⁷⁾ 또한 오랑캐의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신분을 초월하여 민족끼리 서로 돕는 모습은 애민 의식의 발로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약간의 민족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에 <민용암성전>의 작가는 전란 중 인간애가 드러나는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도 않았다.

Ⅲ.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의 거리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은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 모습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작가의 창작동기와 갈래의 차이로 인해 서술시각과 문학적 형상화 방식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전란의 참상을 드러낸 부분에 있어 <강도피화기사>는 병자호란 당시 백성들이 참화를 당하는 모습과 적들이 노략질 하는 모습 등 전란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참화의 모습들을 비유·묘사·대화 등의 문학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반면에 <민용암성전>은 오직 강도 함락 당시 민성 일가의 자결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인물간의 장황한 대화를 통해 묘사·재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윤리의식을 드러낸 부분을 보면 <강도피화기사>는 전란의 상황에서 당시 사대부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윤리의식들이 자연스럽게

27) 정양은 比安縣監으로 있을 때, 고을 백성 중에 가난하여 혼사나 장사를 치르지 못한 사람을 모두 다 찾아 자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명절에는 노인을 찾아 위문하였다고 한다. 또한 杆城郡守로 나갔을 때는 고을이 해마다 흉년이 들을 보고 선박의 세금을 모두 견감해 주고 海魚와 미역을 힘써 옮겨다 진휼하여 살렸다고 한다. (『국역 국조인물고』 2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5, p.267 참조.)

발현되는 현장을 작가가 잘 포착해내어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형상화한 반면에 <민용암성전>은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썼다는 느낌이 들도록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강도피화기사>는 윤리의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사건이 중심이 되도록 서술을 한 반면, <민용암성전>은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직접적으로 윤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나는 장면은 <강도피화기사>에서 많이 보이는 반면에 <민용암성전>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민용암성전>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죽음 앞에서 초연하며, 목숨보다 節義를 중요시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민성이 첩 우씨에게 庶姊를 따라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기를 권하자 우씨가 거절하고 먼저 자결하는 장면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재만이 첩 禹氏를 내보내려고 할 때, 禹氏는 태연하게 담소하면서 종을 시켜 밥을 짓게 하여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였으며, 인하여 말하기를 “주군께서 나를 士族이 아니라 하여 내가 죽기를 아깝게 여길까 의심하시니, 청컨대 나의 뜻을 먼저 드러내겠습니다.”고 하였다. 그리고서 그가 나머지 12인보다 가장 먼저 죽었다.²⁸⁾

이 장면에서는 우씨가 士族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결을 택하는 모습을 극도로 미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담소하면서 밥을 지어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우씨의 모습은 너무도 태연하여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반면에 <강도피화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生에 대한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

28) <閔龍巖坪傳>, 『宋子大全』 卷214. “當載萬之使 禹姓出去也 禹談笑自如 使婢炊飯自喫 亦勸諸人 仍曰 主君以我爲非士族而疑我惜死 請先暴我志也 故其死最先於十二人云.”

<강도피화기사>의 주인공인 정양은 작품 속에서 죽음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전란에서 구해내어 집안의 대를 잇고자 하는 모습²⁹⁾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작품 속에서 보여준 민성일가의 목표가 ‘죽어서 節義를 지키는 것’이라면 정양일가의 목표는 ‘살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용암성전>의 등장인물들은 지극히 ‘이념적인 인물’로 그려진 반면에 <강도피화기사>의 등장인물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 두 작품의 작가가 전란을 체험한 정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도피화기사>의 작가인 정양과 <민용암성전>의 작가인 송시열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서로 사이가 좋았으며 학문적 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³⁰⁾ 작가의 신분이나 사상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정양은 전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반면, 송시열은 전란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강도의 참화를 직접 겪어 본 사람과 겪어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강도의 참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서로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전란 체험 유무는 창작동기와 장르 선택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도피화기사>의 작가이자 작품의 주인공인 정양은 1637년 강도 함

29)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而嫂妻兒必欲獲濟者 庶冀鄭氏之或遺其種也”, “我竟携妻下船 而留宿亡弟妻兒於姪曰 我則必死也 此母子汝可救濟 爲鄭之種也.”

30) 정양은 송시열, 윤선거(尹宣舉, 1610~1669), 유계(兪槩, 1607~1664)와 특히 서로 사이가 좋았으며, 이들과 함께 조부인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의 遺事와 行狀을 바로 잡아 만들어 후세에 전하였다. 그리고 정양은 평생 동안 賢人을 좋아하였으며 경전을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는데, 만년에는 『近思錄』과 『朱書節要』를 좋아하여 송시열과 편지를 왕래하며 질문하였고, 또 자신이 뽑아 기록한 『資治精華』 및 『增修語錄解』를 송시열에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국역 국조인물고』 2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5, p.268 참조.) 훗날, 송시열은 정양의 <강도피화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양일가의 행적을 높이 평가하여 <鄭氏江都陷敗記>를 남기기도 하였다.(『宋子大全』 卷144.)

락 당시에 강도에 있었으며, 전란을 겪은 뒤 강도 피란의 기억들을 재구성하여 1639년 12월 하순에 글로 적어 남긴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바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記事³¹⁾라는 장르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는 전란의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란의 참상과 전란 속에서 윤리의식과 인간애가 발현된 모습에 주목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란의 참상과 함께 전란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간애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용암성전>의 작가인 송시열은 강도 함락이라는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민성과 그 일가의 행적을 우연히 전해 듣고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민성을 입전하였다. 따라서 <민용암성전>에 나타난 강도의 참화 모습은 송시열의 의도에 맞게 재현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전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이란 사회 윤리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장르로서 목적에 부합하는 입전인물의 독특한 행적을 부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민용암성전>의 작가인 송시열은 강도 함락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민성과 그 일가의 자결’이라는 사건만을 취사선택하여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맞추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절의라는 윤리의식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민용암성전>의 모든 내용은 민씨 일가의 자결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 외의 이야기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양은 강도 함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란의 현장을 두루 자세히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사라는 장르를 선택하였고, 송시열은 강도 함락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

31) 記事는 사건의 시말을 자세히 밝혀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서사 양식이다. 기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전이나 야담의 경우처럼 허구적인 내용과 문학적 윤색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조창록, 「記事의 양식적 특성과 작품 세계」,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p.23~24 참조.)

으로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민씨 일가의 행적을 기술하여 후대에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이라는 장르를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은 강도의 참화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에 있어 서로 다른 시각과 형상화 방식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기사는 사건의 시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강도피화기사>의 경우 강도 참화의 다양한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한 반면에 전은 이념의 전달과 고취가 중요하므로, 강도 참화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민성 일가의 ‘절의’와 관련된 것만을 취사선택하여 이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로 인해 등장인물 역시 <강도피화기사>에서는 ‘현실적 인간형’으로 그려진 반면에 <민용암성전>에서는 ‘이념적 인간형’으로 형상화되었다.

IV. 결론

지금까지 정양의 <강도피화기사>와 송시열의 <민용암성전>을 중심으로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작가의식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란의 참상과 윤리의식은 그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에서 모두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은 둘 다 전란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으며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피화기사>는 강도 함락 당시 전란의 참상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는 일에 무게를 둔 반면 <민용암성전>은 강도 함락 당시 민성 일가의 자결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강도피화기사>에서는 전란의 참상을 다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민용암성전>에서는 민성 일가의 자결과 결부된 부분에서만 전란의 참상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윤리의식을 나타낸 부분에 있어서도 <강도피화기사>는 전란 속에서 당시 사대부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윤리의식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민용암성전>은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민용암성전>에서는 전란 속에서 꽃핀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나지 않으며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곧 인물형상의 특징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강도피화기사>의 등장인물들은 ‘현실적’인 모습인 반면에 <민용암성전>의 등장인물들은 다분히 ‘이념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두 작품 간의 이러한 차이는 작가의 전란 체험 유무와 창작동기, 그리고 갈래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강도피화기사>의 작가인 정양은 강도 함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란의 현장을 자세히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사라는 장르를 선택하였으며, 전란의 참상과 함께 전란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간애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반면에 <민용암성전>의 작가인 송시열은 강도 함락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민성과 그 일가가 자결하였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제 3자로서 민씨 일가의 절의를 칭송하여 후대에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이라는 장르를 선택하였으므로, 전란의 참상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절의라는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민성과 그 일가의 자결’이라는 사건만을 취사선택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렇게 작가의 전란 체험 정도와 창작동기가 다르고 각자가 선택한 갈래가 달랐으므로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 모습은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에서 서로 다르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은 ‘병자호란 당시 강도의 참화’가 우리의 문학사에서 갈래나 작가가 다를 경우,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대상화되는가를 잘 제시해주는 작품이며, 그를 통

한 문학적 형상화의 특징은 어떠한가를 밝힐 수 있는 적절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은 현실감 넘치는 서술방식으로 강도의 참화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때문에 개별 작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병자호란과 강도를 배경으로 한 다른 작품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등은 미처 다 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강도피화기사>와 <민용암성전>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글로 미뤄둔다.

참고문헌

- 鄭養, <江都被禍記事>, 『抱翁集』 卷5, 『한국문집총간』 101, 민족문화추진회, 1993.
- 송시열, <閔龍巖坪傳>, 『宋子大全』 卷214, 『(국역) 송자대전』 11, 민족문화추진회, 1983.
- 『국역 국조인물고』 2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5.
- 송철호, 「임병양란 인물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_____, 「17세기의 정표정책과 임병양란 인물전」, 『동양한문학연구』 11, 동양한문학회, 1997, pp.161~176.
- _____, 「戰亂傳의 인물형상과 서술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신선희, 「17세기 필기류와 몽유록의 대비연구」,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pp.6~35.
- 장경남, 「丙子胡亂 實記와 著作者 意識 研究」, 『승실어문』 17, 승실어문학회, 2001, pp.27~71.
- 정충권, 「<江都夢遊錄>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와 형상화 방식」, 『韓國文學論叢』 45, 한국문학회, 2007, pp.67~90.
- 정환국, 「丙子胡亂時 江華관련 실기류 및 夢遊錄에 대한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23, 한국한문학회, 1999, pp.107~132.
- 조창록, 「朝鮮後期 ‘記事’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_____, 「記事의 양식적 특성과 작품 세계」,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pp.7~27.
- 조혜란, 「<江都夢遊錄> 연구」, 『古小說 研究』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pp.329~356.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figuration of
calamity about Ganghwa Island in the period
of Byeongjahoran
- Focusing on <Gangdopehwa-gisa> and
<Minyongamsung-jeon> -

Kim, Hyun-Ju*

This literature well illustrates how the calamity of Ganghwa Island is embodied in relation to writer's intention based on <Gangdopehwa-gisa> of Jungyang and <Minyongamsung-jeon> of Songsiyeol in the period of Byeongjahoran. In addition, it shows that why two literary works have differences based on both whether writer had experience or not and the aspect of genre.

The writer of <Gangdopehwa-gisa> chose genre of Gisa to deliver scene of war in detail, who presented on site when Gangdo took by enemy during the war. For this reason, he could express literary figuration of calamity about Gangdo with devastation of war and warm human love in the war.

On the other hand, the writer of <Minyongamsung-jeon> chose genre of Jeone to give a lesson for future generations concerning integrity of Min's family, who is not presented on site when Gangdo took by enemy. In fact, he could find out the truth of that story by chance and focused on ethical consciousness rather than expression

* Dongguk University

on devastation of war. In other words, he had only selection of event as to Minsung and his family's suicide. Therefore, the characters are embodied in two ways; one is 'realistic human form' in the <Gangdopehwa-gisa> and the other one is 'ideal human form' in the <Minyongamsung-jeon>

It was natural result when Gangdo took by enemy because each writer was placed in a different situation and had choice other genres. In this respect, <Gangdopehwa-gisa> and <Minyongamsung-jeon> are well shown that how to express these works in case of the different genre or writer in literature.

Key Words : Byeongjahoran, Ganghwa Island, <Gangdopehwa-gisa>, <Minyongamsung-jeon>, Jungyang, Songsiyeol, Literary figuration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4월 4일